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ommodity Substituton of Housework in Korea

서울대학교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助教授 : 李 基 榮
Dept. of Hom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Lee, Ki Young

目 次

I. 序 論	2. 調查對象 및 資料蒐集
II. 理論의 背景	3. 資料의 分析方法
1.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의 概念	4. 調查對象者의 一般的 性格
2.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대한 理論的 接近	IV. 研究結果 및 解釋
3.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관련된 諸 要因의 高찰	1.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의 一般的 傾向
4. 研究模型의 構成 및 研究問題	2.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대한 回歸 分析
III. 研究方法 및 節次	V. 結 論
1. 調查道具의 作成	참고문헌

=ABSTRACT=

In this study the phenomenon of commodity substitution of housework is approached in the contexts of economic system, patriachal family system and housework-related human resourc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o measure the level of commodity substitution of housework in large cities. (2)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commodity substitution of housework.

The samples were composed of 982 housewives dwelling in 6 large cities including Seoul. The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distribution, percetil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이 研究는 1986년도 文敎部研究費에 의해 이루어졌음.

The major findings are the following : (1) When the housework was divided into two subdomains, in the domain of food the purchase level was far below average while in the domain of clothes, the level was quite higher than average. This result shows that commodity substitution has become more common in the domain of clothes by mass production of clothes on a commercial scale. (2) The level of commodity substitution of housework was influenced by the family attribute variables such as housewife's age, family income, housewife's education, family types, housewife's brought-up regions, presence of sewing machine, employment status of housewife, by one patriarchal norm variable such as home-orientedness, and by two human resource variables such as importance of housework and household tasks performance competency. Among variables housewife's age was the most influential one and such variables as family income, housewife's education, household tasks performance competency, importance of housework, and home-orientedness were also important. Considering that the influence of home-orientedness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patriarchy and that importance of housework and that performance competency also are determined by the patriarchal variables such as sex-role attitude and home-orientedness, we can conclude that Hartmann's theoretical approach with which the changes of housework were explained in the two contexts of economic system and family system is applied to the changes of housework in Korea.

I. 序 論

家事勞動은 가족원의 勞動力의 再生産을 위해 가정생활의 場에서 행해지는 家事·育兒 및 家政管理를 위한 勞動이다(伊藤セツ·官崎禮子 1980, 158)

家事勞動은 역사의 발전에 따라 그內容이나 性格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家族員의 勞動力의 再生産이라는 本質에는 변함이 없이 超歷史的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물론 家事勞動은 勞動의 한 形態이므로 노동일반의 역사적 변동에 따라 기본적으로 規定되고 變化한다(大森和子 外 1981, 212). 즉 産業이 발달하기 이전에 가족을 扶養하는 物質的 手段이 가정내에서의 가사노동을 통해 自給된 시기에는 여성이 주로 담당하여 온 채소가꾸기, 紡績, 織造, 縫製 등은 들에서의 男性의 勞動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經濟的 生存을 위한 중요한 生産機能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近代産業이 발달하면서 가정내의 生産機能이 점차 가정 밖으로 移讓됨에 따라 賃金勞動이 가족 부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된 반면, 家事勞動은 私的이고 消費的인 性格의 노동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한편 産業資本主義의 지속적인 발달과 함께 企業들의 生産領域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종래 가정내에서 행해지던 家事勞動 중 많은 부분이 産業勞動을 통해 生産된 商品에 의해 代替되거나 경감되고 있다. 즉 資本主義經濟體制는 가정내에서 행해지던 生産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켜 社會的 勞動으로 전환시켰을 뿐 아니라,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消費勞動을 社會的 勞動의 産物로 代替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기능을 社會的 分業의 一環으로 編入시키고 있는 것이다. 종래에 가사노동을 통해 충족되던 가족원의 욕구가 市場에서 구입한 生活手段이나 서비스에 의해 충족됨에 따라 家庭內 生産領域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가정생활은 劃一化된다. 또한 私的인 가사노동이

的인 産業으로 계속 轉移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정생활의 分解라는 상황까지도 예견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資本制商品에 의한 家事勞動의 代替, 즉 家事勞動의 商品代替가 갖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는 産業資本主義의 발달이라는 脈絡 속에서 필연적으로 진전되는 과정으로써 가정생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반영한다. 또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는 전체국민경제의 차원과 개별가계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全體國民經濟的 次元에서 볼 때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는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 가정에서부터 國民經濟의 勞動分業으로 編入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國民總生産의 規模가 확대되게 된다. 個別家計의 次元에서는 가족원의 요구충족에 있어서 최대한의 效用價値를 창출하기 위한 資源의 配分行爲로 볼 수 있다. 個別家計에 있어서의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는 時間集約的인 家計生産으로부터 財貨集約的인 家計生産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절약된 시간이 여가나 市場勞動 또는 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家事勞動領域에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을 示唆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의 現狀을 분석하는 것은 社會經濟的 環境變化 속에서의 家庭生活樣式의 變化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서 國民經濟 속에서의 家事勞動의 位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의 概念을 분명히 한다. 둘째,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대해 經濟體制, 家父長制, 家事勞動 遂行과 관련된 人的 資源의 세가지 脈絡에서 이론적으로 접근해 본다. 셋째, 우리나라 大都市에 있어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의 수준 및 影響要因에

대해 實證的 分析을 해본다.

II. 理論的 背景

1.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의 概念

家事勞動은 勞動의 한 형태로서 勞動一般의 歷史的 變動에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변동한다(伊藤外 1978a). 生産力의 발전에 따라 物質生産이 社會化된 形態-商品生産의 영역-와 가정내에서 주로 女性에 의해 수행되는 私的 勞動으로 분리되면서(Zaretsky 1976, 29), 私的 勞動인 家事勞動의 내용과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오늘날 資本制生産의 발전에 따라 상품생산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가사노동의 변동은 資本制商品과 서비스에 의한 家事勞動의 代替라고 볼 수 있다. Egner(1952, 114)는 예전의 自給自足の 家計로부터 오늘날의 市場依存의 家計로의 변천에 주목하면서, 역사적 흐름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동을 家計內的 生産過程이 끊임없이 家庭外的인 영역 즉 營利的이고 公的인 部門으로 전이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가정내에서 행해지던 家事勞動領域에 資本主義的 商品과 서비스가 침투해 들어감으로써 家事勞動이 代替되어 가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家事勞動의 社會化라고 한다(大森外 1981, 281; 關志比子外 1982, 260; 竹中 1977, 184). 그런데 家事勞動의 社會化라 할 경우에 가정생활의 基本的 機能의 일부가 私的, 個別的 家庭으로부터 社會的인 것으로 치환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大森外 1981, 281). 다시 말해서 家事勞動의 社會化란 資本制商品과 서비스와 같은 私企業勞動, 즉 産業勞動에 의한 가사노동의 代替 뿐 아니라 複數의 個別家族의 分業·協業에 의한 家事勞動의 相互扶助的인 代替, 그리고 학교급식이나 公營食堂 또는 보육원의 이용 등과

같은 公務勞動에 의한 家事勞動의 代替를 포함한다(大森 外 1981, 219-222).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資本主義 生産樣式下에서의 상품생산의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家事勞動의 代替에 초점을 두므로, 가사노동의 가정밖으로의 모든 形態의 轉移와 관련된 廣義의 意味를 갖는 家事勞動의 社會化 대신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라는 用語를 사용하였다.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財貨나 用役을 市場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가정내에서 수행되던 家事勞動이 가정밖의 영역으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Fischer (1972)가 말하는 家事勞動의 産業化(die Industrialisierung der privaten Hauswirtschaft)에 해당된다.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의 극단적인 경우로는 「호텔에서의 생활」과 같이 가정내의 生産機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完全市場依存的 家計가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오로지 購買決定만이 家計에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Fischer 1972).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는 商品에 의한 代替와 서비스에 의한 代替가 있다(大森 外 1981, 220). 半加工品이나 完製品의 사용에 의한 追加的 加工의 성격을 갖는 가사노동의 代替는 前者에 속하고, 식당이나 세탁소, 양장점 등의 이용은 後者에 속한다. 한편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家事用 耐久財의 사용은 商品에 의한 家事勞動의 代替로 볼 수 있으나, 엄격하게 말할 경우 이들 家事用品은 家事勞動의 代替라기 보다는 輕減의 효과를 가지며, 또한 가사용품이 가지는 가사노동의 輕減效果 때문에 家事用品의 사용은 最終消費를 위한 財貨나 用役이 오히려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가정내에서 생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家事用品의 사용이 가사노동의 수행에 주는 효과에 주목해서 Fischer(1972)는 家事用品의 사용을 家事勞動의 機械化(die Technisierung der privaten Hauswirtschaft)라고 명명

하고 家事勞動의 産業化와 구분하였다. 本 研究에서도 家事用品의 使用이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가사노동의 遂行을 留保 또는 促進시킴으로써 가사노동의 가정밖으로의 轉移에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家事用品의 사용을 家事勞動의 商品代替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가정부의 고용도 시장에서 구입되는 用役에 의한 主婦의 家事勞動의 代替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家事勞動의 가정밖으로의 轉移나 家事勞動의 分解와는 相馳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정부의 고용을 家事勞動의 商品代替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는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財貨와 用役의 구입 중 특히 그것이 가사노동의 가정밖으로의 轉移나 私的인 家事勞動의 公的인 産業으로의 解消의 효과를 갖는 경우로 그 범주를 한정하였다.

2.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대한 理論的 接近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를 중요한 社會現象의 하나로 인식하여 그 過程이나 現狀을 중심되는 主題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家事勞動이 人間의 生活를 성립시키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인 하나로써 社會經濟的 要因에 의해 規定되어 長期的·短期的으로 변화해간다고 보고 가사노동의 變動과 그 要因을 탐색하는 연구가 소수이기는 하나 몇몇 학자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Fischer(1972, 1975)는 家庭經濟와 國民經濟와의 관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國民經濟의 立場에서 설명하고자 한 독일 歷史學派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가정내 生産영역이 국민경제의 勞動分業으로 編入되는 과정 중 하나를 家事勞動의 産業化로 보고 그 현상, 배경 및 문제점에 대해 巨視的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Fischer는 企業

領域에서 大量으로 생산되는 消費財가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産業化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家事勞動의 産業化가 費用上的 利點 뿐 아니라 技術上的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기술상의 진보가 우선적으로 消費財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공장내의 機械設備部門에서 실현될 경우에는 費用上的 利點이 고양되어 가사노동의 産業化가 더욱 촉진되나, 기술상의 진보가 개별가계에 공급되는 家庭器機로 반영되고 이러한 家庭器機가 적당한 가격수준에서 보급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된 경우에는 産業部門을 통해 代替된 가사노동이 다시 家庭內로 복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Fischer는 이러한 요인 외에도 主婦의 就業, 勞動市場의 狀況, 家計所得의 水準과 支出配分, 그리고 市場에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 가족원의 個別的인 慾求를 충족시켜 주는 정도 등의 要因에 의해 家事勞動의 産業化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Hartmann(1974)은 1900년에서 1930년에 걸쳐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여성의 일, 즉 가사노동의 변천을 經濟體制와 家父長制의 두 脈絡에서 접근하였다. 그에 의하면 資本主義는 家計가 어떻게 生計를 유지하는가, 또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떠한 物品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해 줌으로써, 그리고 家父長制는 個別化된 家族體系의 존속을 요구함으로써 가사노동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 그는 資本主義經濟體制와 家父長制가 때로는 서로 對立하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相互補完關係를 유지하면서 가사노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는 兩體制의 영향에 의한 가사노동의 변화로 資本制商品에 의한 家事勞動의 代替, 家庭器機의 사용에 의한 가사노동의 機械化, 가사노동의 內容 및 性格의 변화, 가정내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량의 변화

등을 언급함으로써, 家事勞動의 商品代替가 家事勞動의 변동의 중요한 한 측면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伊藤 등(1979a)은 慣習化되고 樣式化된 家事勞動의 方法이 새로운 家事樣式을 향해 推移하는 움직임을 변동으로 보고 이 변동을 규정하는 要因을 실태조사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가사노동의 변동을 長期的 變動과 短期的 變動으로 구분하고, 장기적 변동은 家庭外的 要因, 즉 가정밖의 社會的·經濟的 要因에 의해 규정되며 短期的 變動은 家庭內的 要因, 즉 가족의 所得水準, 아내의 취업유무, 家族週期, 가족의 생활습관, 가정생활에 관한 意識 등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生産力의 발전에 따른 家庭外的인 要因의 변화에 대한 가정내부로부터의 對應은 受動的으로 보이지만, 受動的으로 보이는 家事樣式下에서 生活者의 측으로부터의 自體的 家事處理變革에의 움직임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밖에 일부 가정학자들(Reid 1984 ; Kyrk 1933)은 家事勞動의 遂行에 대한 意思決定의 시각에서, 또한 新古典學派 經濟學者들(Becker 1965 ; Gronau 1977 ; Ehrenberg & Smith 1985)은 效用의 極大化를 전제로 한 資源組合의 選擇의 시각에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Reid(1934)와 Kyrk(1933) 등 두 家庭學者들은 이미 50년전에 家計生産의 過程을 직접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들은 家事勞動 자체가 가지고 있는 利點과 短點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것이 消費財의 구입을 통해 家事勞動을 代替할 것인지 또는 가사노동을 수행함으로써 필요한 財貨와 用役을 직접 生産할 것인지에 대한 意思決定에 주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밖에도 Reid(1934)는 가사노동의 수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要因으로, 誇示的인 消費, 教育, 판매의 압력, 生活週期段階, 家事勞動 代替品の

人手可能性과 質的인 수준을 들었다. 또한 이들은 家事勞動의 수행이나 市場代替에 대한 결정이 新古典學派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限界上에서 合理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Kyrk 1933; Reid 1934). 한편 Becker를 중심으로 하는 新古典學派들은 家事勞動을 效用價値의 근원이 되는 家計商品(household commodities)을 생산하는 활동으로 보고, 家計商品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가사노동시간이 市場財나 서비스 등과 더불어 중요한 投入要素임을 강조하였다(Michael & Becker 1976, 134). 新古典學派들은 자유로운 선택에 초점을 두고 이 선택은 效用을 극대화시키는 균형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賃金率과 家計收入, 財貨의 가격, 市場勞動과 非市場勞動에서의 生産性의 변화가 所得效果와 代替效果를 통해 勞動時間과 消費時間의 배분 및 市場財와 시간의 조합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Ehrenberg & Smith 1985). 이들은 특히 家事勞動과 市場財가 效用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代替的인 관계를 갖는다고 봄으로써(Ehrenberg & Smith 1985; Zick & Bryant 1983), 시간배분에 관련된 미시경제적 접근이 家事勞動의 市場代替研究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문헌들의 접근방법을 토대로 할 경우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는 經濟體制, 家族體制,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수행자의 인식 즉 人的資源의 세 脈絡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관련된 諸要因의 고찰

본 논문에서는 短期的인 시각에서 實證的으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대한 經濟體制, 家

父長的 家族體制, 家事勞動에 대한 認識 등 세 脈絡에서의 접근은 短期的 視角에 있어서는 각각 家族屬性要因, 家父長的 規範要因, 家事勞動 遂行과 관련된 人的資源要因으로 압축된다. 이들 요인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주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家族屬性要因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영향을 주는 家族屬性要因으로는 家計所得, 家事用品 保有度, 主婦의 學歷, 主婦의 就業 및 연령, 家族形態, 子女數, 가정고용인 유무, 거주지 및 주부의 성장지, 그리고 주거유형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家計所得은 家族員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財貨나 用役의 구입에 필요한 財源으로 기능하므로 그 수준이 상승됨에 따라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는 촉진된다. 한편 家族所得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家事用 耐久財나 서비스에의 支出이 증가되는데, 家事用 內久財의 사용은 오히려 해당 가사노동의 가정내 수행을 촉진시키고 또한 서비스의 구입은 그 비용¹⁾ 때문에 구입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자연히 가사노동의 商品代替의 진전정도는 완화된다. 이밖에도 生活水準의 향상은 획일화된 생활에의 거부감이나 個性的인 생활영위욕구에의 증대를 수반하게 되므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에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는 지연되게 된다. 결국 家計所得이 높아질수록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는 촉진되나, 일정수준 이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가사노동을 상품대체시키는 소득의 영향력 정도가 弱化된다고 볼 수 있다.

家事用品의 사용은 Fischer(1972)에 의하면 勞動集約的인 가사노동으로부터 노동을 절약하는 器機를 사용하는 資本集約的인 가사노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는 가사노동의 生産性を 증대시킴으로써(Hartmann 1974) 오히려 家計內

註1) 서비스는 분산성과 개별적 요소의 특성때문에(Galbraith 1973, 41~42) 제조업 분야의 대량생산되는 재화에 비해 그 비용이 비싸다.

에서의 財貨나 用役의 支給 정도를 높인다. 家事用品이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를 지연시키는 效果는 물론 모든 가사용품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세탁기나 재봉틀의 경우와 같이 市場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에 相應하는 家事勞動이 家庭器機의 도움으로 가정내에서 용이하게 수행되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하겠다.

주부의 학력은 가정생활의 간소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를 촉진시킨다. 학력이 높은 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의 生産性과 效用性이 증대됨으로써 가사노동시간이 단축되는데(Schultz 1973, 79), 이 때 가사노동시간의 단축은 資源의 效率的인 配分, 특히 消費財의 구입을 통한 전통적인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主婦의 學歷은 賃金率과 관련해서 家計生産樣式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데(Ehrenberg & Smith 1985), 일정한 量의 家計生産(household outputs)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학력이 높은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은 商品과 他人의 用役의 구매 등과 같은 투입요소와 대체된다는 Leibowitz(1974)의 주장도 이를 지지해 준다.

한편 主婦의 就業은 家計所得의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사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Gronau 1977; Nichols & Metzen 1978; Wheeler & Arvey 1981)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와 관련된다. 그러나 便宜品의 소비나 外食에 대한 몇몇 實證的 研究(Waldman & Jacobs 1978; Douglas 1976; Goebel & Hennon 1982)에서는 就業主婦와 非就業主婦間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부의 就業은 직접적으로 家計의 生産樣式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家計의 所得을 매개로 해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稼得額의 차이의 근원이 되는 직업상의 지위—전문직과 비전문직 또는 高級職과 低級職—에 따른 家事遂行樣式의 차이(Schaninger & Allen 1981; 이용학 1985)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主婦의 賃金率이 높을 경우 고용시장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財貨集約的인 家計生産樣式을 채택한다는 新古典學派의 이론(Ehrenberg & Smith 1985)도 이를 支持해 준다.

주부의 연령은 가사노동의 경험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가사노동의 商品代替에 영향을 준다. 즉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소극적인데, 연령이 많은 사람은 保守的이고 변화에 거부적이라는 사실(Olson 1982, 131)이 이를 支持해 준다.

家族形態와 子女數의 영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자녀수가 많거나 확대가족인 경우에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보다는 家事勞動의 遂行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規模의 經濟性 原理(Prais & Houthakker 1955, 146)를 가계생산에 원용해 봄으로써, 즉 家族規模가 클수록 家計生産의 效用性이 증가된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증대되는 것을 보여준 연구결과(Gronau 1977; Walker & Woods 1976)가 이를 입증해 준다. 子女養育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므로 당연히 주부는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게 되고(Becker 1965), 또한 자녀양육의 市場代替品의 가격이 비싸므로 주부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한데(Gronau 1977), 자녀양육을 위해 주부가 집에 있게 되면 다른 가사노동도 수행하게 되므로 가사노동의 商品代替의 정도는 낮아지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核家族의 경우에는 주부의 裁量權이 증대되므로 家事樣式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하게 된다는 사실도 가족형태와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와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한편 가정고용인은 가정내에서의 가사노동 수행에 人的 資源으로 기능함으로써 市場財의 구입에 의한 家事勞動의 代替를 지연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고용인의 성격—家庭婦 또는 派出婦—에 따라서는 가정용역의 고용이 家事樣

식에 대해 반드시 일관된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우기 앞으로 가정고용용역이 가사노동영역별로 전문화된다면, 이는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기 보다는 專門化된 用役의 고용 자체가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의 典型的인 형태가 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주거환경변수와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와의 관계를 보면 도시에서 성장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의 정도가 높다. 가사노동의 商品代替는 도시생활의 전형적인 생활패턴을 나타내며, 특히 도시의 밀집에 따른 住居의 狹小함은 自給의 條件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關志比子 外 1983). 또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계가 居住空間의 條件이나 環境條件의 영향으로 市場代替品에의 접근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家父長的 規範要因

産業資本主義의 발달에 따라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資本制商品에 의해 代替되었으나, 아직도 가사노동 중 많은 부분이 그대로 가정내에 유보되고 있으며, 특히 心理的·情緒的 安息處로서의 가정의 기능이 중시되면서 이에 수반되어 가사노동 수행의 責任이 여전히 女性에게 부과되고 있다. 결국 가정내 생산양식의 변화는 資本主義體系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다른 요인, 즉 家父長制의 요인을 고려함으로써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家父長制는 그 物質的 토대인 性別分業을 통해 女性을 가족에 예속시킴으로써(이미경 1982), 그리고 또한 家父長制에 근거한 位階的인 性別職業分離가 자본주의 산업경제에서 男性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家事에 전념토록 강요함으로써, 여성의 가사노동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가사노동수행에 대한 이와 같은 家父長制의 영

향은 곧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대한 家父長制의 영향을 示唆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民主主義 理念의 대두와 함께 전통적 家族規範은 많이 이완되었으나 남성권위나 남성에 의한 女性勞動力의 통제 등 전통적 가족제도의 핵심적 요소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노동력의 統制는 家父長的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Hartmann(조형 역 1985)이 지적한 대로 家父長制는 資本主義 産業經濟에 의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경제체제와 相互補強하면서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예속적 위치」를 지속시켜 여성으로 하여금 母性役割과 家事役割에 전념케 하고 있는 것이다.

個別家計 次元에 있어서 가부장적인 규범요인은 性役割規範과 家庭志向性의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性役割規範이란 남녀간에 위계질서가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역할수행을 요구하는 行爲規則(이영자 1985, 35)을 말하는데, 성역할규범에의 고착정도가 클수록 보수적인 性役割觀(박인덕 1977; 정해은·서병숙 1983)과 職業觀(한정자 1985; 이동원 1976)을 가지므로 가사노동의 商品代替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家庭志向性은 家庭의 固有性이나 個別性을 중시하고 家族中心的 價値를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하는데, 이는 산업사회에서 가정생활이 경제생활로부터 분리되면서 가정이 非情한 사회로부터의 안식처이며 또한 主觀的 삶의 實現이 가능한 피난처라는 인식(조혜정 1985, 98)과 함께 家族을 해체하고자 하는 外部의 힘에 대한 대항의 일환으로 추구하고 있다. 生活水準이 向上되고 주거가 私的空間化됨에 따라 가정지향성은 私的生活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나타나는데 家庭志向性은 가정, 가족, 母性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근원을 家父長制에 두고 있다. 특히 家庭志向性은

家族主義가 가정운영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향이던 점에서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데 가정지향성을 추구하는 가계일수록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하겠다.

3) 家事勞動 遂行과 관련된 人的資源要因

본 논문에서는 가사노동 수행에 필요한 人的資源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만큼 가사노동의 가정내 수행정도가 높아진다는 전제하에서 人的資源이 가사노동의 商品代替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人的資源 중 특히 認知的 要素, 情緒的 要素 그리고 實踐的 要素에 초점을 두어 가사노동에 대한 價値認識, 態度 및 技術을 중요한 영향변수로 선정하였다. 價値란 “이용가능한 行動의 目標, 手段, 樣式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個人이나 集團이 특이하게 소유하고 있는 소망대상에 대한 明示的 또는 暗示的 觀念”(Kluckhohn 1951, 395-403·Gross 外 1980 재인용)으로서 인간행동에 대한 指針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家事勞動 자체를 가치있게 생각하는 주부들은 그렇지 않은 주부들에 비해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며, 자연히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는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態度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으로서,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란 가사노동에 대하여 가지는 지속적인 好意的 또는 非好意的 心的 傾向을 뜻하며, 이는 選好, 興味 또는 혐오의 감정과 관련된다(Steidl & Bratton 1968, 15).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는 가사노동의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거나 수행에 따른 產出로 나타나는 데 인적 자원의 형태로서 投入要素로 작용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가사노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또는 가사노동을 選好할

수록 가사노동의 수행정도가 높아진다. 이는 가사작업에 대한 態度와 遂行頻度나 標準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Deacon & Firebaugh 1981, 149), 또는 가사작업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Gross 外 1980, 278)에 의해 지지된다.

技術은 인간의 능력의 구성요소 중 實踐的 領域으로서 知識의 응용 및 實際行爲에 해당되는 개념이다(이기준 1985, 61). 가사노동기술도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人的資源의 형태로 가사노동의 投入要素로 작용함으로써 家事樣式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가사노동 수행기술이 높은 주부가 기술수준이 낮은 주부보다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대해 소극적이다. 특히 전통적이면서 市場代替가 유용한 家事勞動領域에 있어서의 주부의 技術水準의 차이가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4. 研究模型의 構成 및 研究問題

앞에서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實證的 分析을 위한 研究模型을 구성하고, 管理體系理論(Gross, Crandall, & Knoll 1980; Deacon & Firebaugh 1981)을 적용하여 변수들의 위치를 설정하였다.

우선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는 人的資源과 物的資源의 組合에 대한 意思決定의 결과라는 점에서 管理體系模型의 產出要素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가족속성변수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 중 가장 밀접한 환경인 家計環境(household environment)을 구성함으로써 物的資源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또는 家族體系內에 위치함으로써 人的資源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家父長的 規範변수는 各家計가 전통적인 家政體系를 志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행동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관리체계모형에 있어서는 動機要素로 기능하며

註2) 가사노동의 市場代替品이 주로 식생활영역과 의생활영역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心理社會的 下位體系에 위치한다. 끝으로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변수는 각 가계의 가사노동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입요소로서 管理的 下位體系에 위치한다.

가족속성요인, 가부장적 규범요인 및 인적자원요인 등 세 요인은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각 요인이 관리체계모형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要因간의 관계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家族屬性要因은 固定되고 內在化된 各家計의 特性要因으로서 家父長的 規範要因 및 人的資源要因을 규정함으로써, 그리고 家父長的 規範要因은 人的資源要因을 규정함으로써 각각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편 인적자원요인은 가족속성요인과 가부장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므로 이들 요인과 家事勞動의 商品代替間的 媒介的인 要因으로 기능하며,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준다.

이상 세 요인과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와의 관

계에 초점을 두어 이를 函數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Q = q(X_i, Y_j, Z_k)$$

Q = 家事勞動의 商品代替

X_i = 家族屬性要因

Y_j = 家父長的 規範要因

Z_k = 家事勞動關聯 人的資源要因

위의 함수식에 포함된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즉 가족속성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로는 家計所得, 家事用品 保有度, 주부의 학력, 주부의 취업, 주부의 연령, 가족형태, 子女數, 가정고용인 유무, 거주지 및 성장지, 주거유형을 채택하였고, 가부장적 규범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로는 性役割態도와 家庭志向性을 채택하였으며, 인적자원요인에는 家事勞動 重要性에 대한 認識度, 家事勞動 選好度, 家事勞動 遂行能力變數를 포함시켰다. 또한 종속변수인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는 食生活領域과 衣生活領域으로 한정하였다.²⁾

표 1. 尺度의 測定法, 점수의 分布 및 信賴度

尺 度	測 定 法	점수의 최소치	分 布 최대치	信賴度 ¹⁾
家事勞動의 商品代替	식생활영역과 의생활영역에서 선정된 30개 항목의 시장구입 정도로서 각 문항은 3점척도로 구성	0	60	0.82
性役割態度 ⁺	性別分業과 관련된 5점척도의 17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측정	17	85	0.89
家庭志向性	가사노동의 公的 部門으로의 이양과 관련된 5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가족중심적인 가치지향정도를 3점척도로 측정	0	10	0.44
家事勞動 重 要 度	가사노동의 가치와 관련된 5점척도의 6문항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측정	6	30	0.74
家事勞動 選 好 度	가사노동의 특성요인과 관련된 5점척도의 1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측정	15	75	0.85
家事勞動 遂 行 能 力	가사작업 영역별 과제 20문항에 대한 遂行技術의 평가를 5점척도로 측정	20	100	0.84

⁺성역할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¹⁾신뢰도는 문항간의 內의 一致度에 의거한 cronbach's α 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우리나라 大都市에 있어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와 食生活領域 및 衣生活領域의 商品代替의 水準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2：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영향을 주는 가족속성변수, 가부장적 규범변수 및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調査道具의 作成

본 연구의 測定道具는 질문지로서 질문지는 基礎調査를 거쳐 확정된 것을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家事勞動의 商品代替尺度, 性役割態度尺度, 家庭志向性尺度, 가사노동 중요도, 가사노동 선호도, 가사노동 수행능력척도를 구성하는 문항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중요 변수들의 尺度의 測定法, 점수의 분포, 그리고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2. 調査對象 및 資料蒐集

가사노동의 一次的인 責任者가 가정주부이며 또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란 都市化에 수반되어 보편화되는 현상이므로 大都市에 거주하는 主婦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調査對象都市는 서울을 위시하여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의 6개 도시로 하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生活水準을 고려한 意圖的 標準抽出에 의해 표본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재학생 25명으로 하여금 조사대상자

에 따라 인터뷰방법이나 주부가 질문지에 직접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을 대해 조사하도록 하였다. 지방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별로 대학을 선정하여 가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대상자를 변담하여 기재케 하였다.

본조사는 1986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질문지는 서울 700부, 지방은 도시별로 100부씩 50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서울 618부, 지방 405부였으며, 이 중에서 내용기재가 부실한 것을 제외한 982부를 分析資料로 사용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91부, 대구 55부, 인천 99부, 대전 68부, 광주 83부, 전주 86부이다.

3. 資料의 分析方法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의 水準을 알기 위해서는 頻度分布, 百分率, 平均을 사용하였다. 또한 세 요인에 속한 변수들이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주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는 重回歸分析을 적용하였다.

統計의 計算은 서울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4.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性格

주부의 연령을 보면 40대가 31.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0대, 20대, 50대의 順으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주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국민학교 졸업 順으로 우리나라 주부들의 평균 학력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직업^{註3)}은 비취업 주부가 73.5%, 취업주부 중 전문직에 취업한 주부가 13.6%, 비전문직에 취업한 주부가 12.9%로 나타났다.

註3) 직업은 김영모(1978)의 분류를 근거로 하였으며 전문직에는 전문·관리직, 전문·기술직, 사무직을, 비전문직에는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을 포함시켰다.

표 2. 食生活領域과 관련된 項目의 市場購入 程度

(N=982; 단위 %)

項 目	1*	2*	3*	4*
(1) 간 장	63.7	27.8	6.0	2.5
(2) 된 장	64.7	29.2	5.5	0.6
(3) 고 추 장	65.8	28.5	4.8	0.9
(4) 매 주	32.8	47.5	12.0	7.7
(5) 만 두	41.9	33.2	17.9	7.0
(6) 김 치	95.1	3.9	1.0	-
(7) 젓 갈	23.5	35.2	36.9	4.4
(8) 밀 반 찬	64.5	26.5	6.1	2.9
(9) 칼 국 수	50.2	26.9	14.6	8.3
(10) 찌 개 거 리	89.3	7.6	1.7	1.4
(11) 냉 동 튀 김 심 품	36.2	34.3	13.6	15.9
(12) 시 루 떡	44.9	23.9	20.1	11.1
(13) 간 식 용 과 자	5.7	33.8	57.2	3.3
(14) 아 침 식 사	66.8	29.4	3.8	-
(15) 보 통 라 면	18.1	30.2	51.6	-
(16) 컵 라 면	73.2	15.7	11.1	-
(17) 가 족 단 위 외 식	57.6	35.5	6.9	-

* 1은 '집에서 만든다', 2는 '집에서 만들기도 하고 시장에서 사기도 한다', 3은 '시장에서 구입한다', 4는 '해당되지 않는다'이다. 단, 항목(1)~(4)까지의 2는 '친척으로부터 얻는다'에 해당되며, (14)의 1은 '항상 밥을 먹는다', 2는 '빵을 먹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한다', 3은 '항상 빵을 먹는다'를 의미한다. (15), (16), (17)은 빈도가 고려되었는데 (15)와 (16)은 1이 '거의 먹지 않는다' 2가 '월 1~2회 정도 먹는다', 3이 '주 1회이상 먹는다'이며, (17)은 1이 '1년에 수번 또는 거의 하지 않는다', 2가 '월 1~2회 정도 외식한다', 3이 '주 1~2회이상 외식한다'를 의미한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40만원에서 60만원 미만이 25.2%로 가장 많으며 평균 월소득은 586,5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구성과 관련된 특성을 보면 자녀수는 2인이 31.1%로 가장 많고, 3인, 1인의 순으로 평균 자녀수는 2.15인이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0.1%이며, 가정고용인 고용여부를 보면 5.1%의 주부가 가정부를, 또한 17.6%의 주부가 파출부를 고용하고 있다.

주거환경 특성을 보면 단독주택이 67.3%로 나타났다으며, 주부의 주된 成長地는 지방 대도시가 31.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읍 또는 면, 서울, 小

都市의 順으로 나타났다.

IV. 研究結果 및 解釋

1.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의 一般의 傾向

식생활과 의생활영역에 관련된 30개 항목의 시장구입정도는 표 2, 표 3과 같다. 우선 식생활 영역을 보면 우리나라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장류나 고추장류는 5-6% 정도의 주부만이 시장구입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주부가 직접 집에서 담그거나 친척집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매 주는 12% 정도의 주부가 시장구입을 하고 반수에

가까운 주부가 친직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는 상품대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밖의 음식이나 간식종류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끔씩 完製品이나 半製品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면에 의한 식사대용이나 外食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食生活은 衣生活에 비해 자본주의적

대량생산에 의해 代替되는 것이 시간적으로 늦고 특히 전통적인 식품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부들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産業生産의 범주의 확대에 따라 一部食品의 商品化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라면産業의 급격한 발달은 食生活樣式의 커다란 변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외식횟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外食産

표 3. 衣生活領域과 관련된 項目의 市場購入 程度

(N=982; 단위 %)

項 目	1 ⁺	2 ⁺	3 ⁺	4 ⁺
(1) 의 출 복	1.4	8.7	85.2	4.7
(2) 한 복	1.2	4.0	81.2	13.6
(3) 홈 웨 어	2.6	16.4	71.7	9.3
(4) 아 이 들 옷	0.8	15.5	74.8	8.9
(5) 스 웨 터, 장갑류	13.1	38.4	44.4	4.1
(6) 실내장식용수예품	5.5	32.4	52.4	9.7
(7) 여 블 이 불	7.8	26.5	61.8	3.9
(8) 겨 울 이 불	21.2	24.6	50.0	4.2
(9) 힘 든 빨 래	77.3	15.4	4.5	2.9
(10) 양 복 다 림 질	42.8	46.4	9.7	1.1
(11) 단 고 치 기	48.6	38.1	12.8	0.5
(12) 폭 고 치 기	23.0	53.1	22.6	1.3
(13) 지 퍼 바 퀴 달 기	27.0	47.2	24.5	1.3

+ 1은 '나의 집에서 한다', 2는 '집에서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구입을 하기도 한다', 3은 '나의 시장에서 구입한다', 4는 '해당되지 않는다'이다.

註4) 共分散分析을 실시함에 있어서 變數別로 相互 밀접한 관계를 갖는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켜 統制함으로써 特定變數의 독립적인 效果를 보았다.

註5) 分散分析結果 가사용품 保有度에 따라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의 차이는 의미 있게 나타났으나 正的또는 負的으로 일관성 있는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가사용품 중 재봉틀보유여부에 기인하므로 가사용품보유도 대신 재봉틀보유변수를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註6) 주부의 就業여부보다 주부의 직업을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나눈 주부의 직업상의 지위변수가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의 分散을 잘 설명해 주므로 이 변수를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註7) 이론적 고찰에서 제시한 변수중 子女數, 가정고용인 유무, 住居形態, 性役割態度, 家事勞動 選好度는 共分散分析結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를 의미있게 설명해주지 못하므로 회귀식에서 제외하였다.

註8) 월평균 가계소득액 및 가계소득 로그치와 가사노동의 商品代替와의 상관계수를 보면 전자가 0.158, 후자가 0.180으로 후자가 더 크다.

표 4. 家事勞動의 商品代替尺度와 下位領域別 商品代替尺度의 集團別分布

集 團	家 事 勞 動		食生活領域		衣生活領域	
	點 數	白分率(頻度)	點 數	白分率(頻度)	點 數	白分率(頻度)
下 位 集 團	0~15	6.6 (65)	0~8	40.6 (399)	0~6	2.4 (24)
中 位 集 團	16~44	91.8 (901)	9~25	58.6 (575)	7~19	76.4 (750)
上 位 集 團	45~60	1.6 (16)	26~34	0.8 (8)	20~26	21.2 (208)
平 均 (X)	26.3		10.3		16.0	
標 準 偏 差 (S D)	7.7		4.9		4.3	

業의 발달과 식당의 大衆化에 따라 食生活領域의 商品代替는 앞으로 점차 보편화되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의생활영역을 보면 衣服製作과 관련된 가사노동은 거의 상품대체되고 있으며 뜨개질류나 실내장식용 소품도 많은 가정에서 시장구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의생활과 관련된 용역의 시장구입정도를 보면 빨래는 거의 집에서 하지만 다림질은 시장대체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특히 옷수선은 많은 가정에서 시장노동에 의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생활영역 중 의류나 침구류 등 既成品에 있어서는 기업에 의한 商品化가 이미 정착되었으며, 商品化의 영역이 옷수선이나 세탁과 같은 用役部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항목별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정도를 尺度化한 결과를 보면 표 4와 같다. 가사노동의 상품대체 측정치를 점수에 따라 3集團을 나누어 집단간 빈도를 보면, 家事勞動의 商品代替가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 6.6%, 中間集團이 91.8%, 높은 집단이 1.6%이고, 평균점수는 26.3점으로 中間點인 30점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家事勞動을 下位領域別로 나누어 보면 食생활영역은 商品代替의 分布가 낮은 집단과 중간집단으로 치우치고, 의생활영역은 중간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치우쳐서 나타나고 있다. 平均을 볼 경우에도 食생활영역은 10.3으로 中間點인 17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 반해 의생활영역은 16.0점으로 중간점인 13점을 많이 上廻하는 수준이다. 食생활영역보다 의생활영역의 商品代替가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의생활영역이 企業에 대한 商品化가 가정의 消費生活를 變容시킨 전형적인 영역이라는 伊藤 등 (1978b)의 研究結果에 일치된다.

2.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대한 回歸分析

앞의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가족속성변수, 家父長的 規範變數, 가사노동관련 人的資源變數들이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미치는 獨立的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重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回歸模型에는 共分散分析(analysis of covariance)⁴⁾ 결과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대해 독립적인 效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變數들만을 포함시켰다. 이들을 보면 家族屬性要因에 속한 家計所得, 재봉틀 보유⁵⁾,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상 지위⁶⁾, 주부의 연령, 가족형태 및 주부의 성장지와 家父長的 規範要因에 속한 家庭志向性, 人的資源要因에 속한 家事勞動 重要도와 家事勞動 遂行能力⁷⁾이다.

以上的 變數들을 回歸模型에 포함시킴에 있어서 변수들의 값을 다음과 같이 전환하였다. 우선 家計所得은 散布度(scatterplot)를 통해 본 共變異關係를 고려하여 소득액을 로그치로 전환하였으며⁸⁾, 재봉틀보유는 재봉틀이 없는 경우 0점,

표 5.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대한 回歸分析 從屬變數—家事勞動의 商品代替 (N=937)

獨 立 變 數	B(SE B)	β	r
主 婦 의 年 齡	-0.211 (0.027)***	-0.262	-0.377***
家 計 所 得	2.421(0.432)***	0.180	0.180***
主 婦 的 學 歷	0.296(0.079)***	0.133	0.388***
遂 行 能 力	-0.106(0.024)***	-0.131	-0.274***
重 要 度	-0.266(0.059)***	-0.126	-0.237***
家 庭 志 向 性	-0.446(0.100)***	-0.126	-0.269***
家 族 形 態	1.722(0.528)**	0.089	0.062*
成 長 地	1.341(0.503)**	0.080	0.252***
재 봉 틀 保 有	-1.105(0.478)*	-0.070	-0.191***
專 門 職 假 變 數	1.363(0.675)*	0.060	0.265***
常 數	34.724		
R ²	0.337		

+ listwise deletion

*p<0.05 **p<0.001 ***p<0.001

B: 非標準化된 回歸係數 β : 標準化된 回歸係數

있는 경우 1점을 주어 假變數로 전환하였다. 주부의 학력은 해당되는 교육수준을 年數로 전환하였으며, 주부의 직업상 지위는 불연속적 변수로서 세 범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두가지의 假變數로 전환하였다. 즉 주부집단을 準據集團으로 하여 전문직가변수와 비전문직가변수를 만들어 적용시켰다. 주부의 연령은 그대로 적용시켰고 가족형태는 핵가족 1점, 확대가족 0점을 주어 각각 假變數로 전환하였다.

한편 家庭志向性, 家事勞動 重要度, 家事勞動 遂行能力은 척도화한 점수를 적당하게 범주화하여(breakdown)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와의 관계를 분산분석한 결과 모두 線形的 關係가 有意함으로써(p<0.001) 回歸假定을 만족시키므로 측정치를 그대로 회귀식에 적용시켰다.

이상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문적인 가변수를 제외한 10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우선 종속변수인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와 독립변수와의 단순상관관계를 보면 주부의 학력(r=0.388), 연령(r=-0.377), 수행능력(r=-0.274), 家庭志向性(r=-0.269), 전문직가변수(r=0.265), 주부의 성장지(r=0.252)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각의 獨立變數가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보면 주부의 연령이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다음이 家計所得, 학력, 遂行能力, 家事勞動 重要度, 家庭志向性, 家族形態, 成長地, 재봉틀 보유, 전문직가변수의 順이다.

주부의 연령은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beta = -0.262$), 연령이 많은 주부일수록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정도가 낮다. 연령이 많을수록 새로운 변화에 拒否的이거나 消極的인데(Olson, 1982), 이러한 성향이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령이 젊은 주부는 자녀가 어리므로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을 배분해야 되는 데서 오는 시간의 制

約때문에 家事勞動의 簡素化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인 家計所得을 보면, 家計所得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상품대체가 많이 진전된다($\beta=0.180$). 재화 및 용역의 시장구입을 통한 가사노동의 대체는 일정수준의 소득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소득의 영향력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주부의 학력으로서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의 수준이 높다($\beta=0.133$). 주부의 학력과 종속변수와의 상관계수($r=0.388$)에 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크기가 작은 것을 볼 때 학력이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주부의 학력은 家庭志向性에의 영향($r=-0.158$)을 매개로 해서, 또는 연령($r=-0.343$), 가계소득($r=0.366$), 전문직가변수($r=r=0.327$), 성장지($r=0.433$)와의 결합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가사노동 수행능력이다. 주부가 스스로의 기술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수준이 낮는데($\beta=-0.131$), 이는 家事課題에 대한 수행의 질이 높을수록 해당 과제에 대해 많은 책임을 진다는 Wheeler(1984)의 연구결과와 어느정도 一致한다. 한편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의 수행능력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r=0.246$), 수행능력은 연령과 가사노동의 상품대체간의 媒介變數로서도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家事勞動 遂行의 質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家事勞動 重要도와 家庭志向性으로 그 영향력이 같다($\beta=-0.126$). 주부가 가사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또한 家庭志向的인 가치를 추구할수

록 家事勞動의 商品代替水準이 낮다. 가사노동의 상품대체가 가정생활의 획일화라는 속성을 갖고, 이러한 획일화에 대해 가족원이 갖는 拒否感이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를 제약한다는 점(Fischer 1975)을 고려할때, 가정의 고유성을 추구하는 주부일수록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소극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家庭志向性과 가사노동 중요도($r=0.187$), 가사노동 수행능력($r=0.211$)과의 관계를 볼 때 家庭志向性은 인적자원 변수를 媒介로 해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앞의 변수들처럼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家族形態($\beta=0.089$), 주부의 成長地($\beta=0.080$), 재봉틀보유($\beta=0.070$), 전문직가변수($\beta=0.060$)가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 우선 가족형태를 보면 핵가족의 경우가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를 많이 진전시킨다. 이는 가족형태에 따른 속성의 차이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가족규모의 차이에 의한 效果로도 볼 수 있다. 한편 家族形態의 β 값이 상관계수($r=0.062$)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專門職에 취업한 주부가 확대가족의 형태를 취함으로써⁹⁾ 가족형태의 영향력이 상관계수에서는 상쇄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부의 성장지를 보면 도시에서 성장한 주부가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적극적이며, 재봉틀보유여부를 보면 재봉틀을 보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程度가 높다. 재봉틀의 보유를 가사노동의 機械化의 한 형태로 볼 경우 이러한 관계는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가사노동의 가정밖으로의 轉移와의 對立관계(Fisher 1972; Hartmann 1974)를 어느정도 입증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專門職假變數의 영향을 보면 專門職에

註9) 전문직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나 비전문직 취업주부보다 확대가족의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다($x^2=9.422$, $p<0.001$).

취업한 주부가 非就業主婦나 非專門職에 취업한 주부보다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적극적이다. 전문직가변수의 β 값에 비해 相關係數($r=0.265$)가 훨씬 큰 것을 볼 때, 전문직가변수가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문직 가변수는 가사노동 수행능력($r=-0.209$)을 매개로 해서, 또는 주부의 학력($r=0.327$)과 가계소득($r=0.214$)과의 결합관계를 통해서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專門職假變數와는 대조적으로 非專門職假變數는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특기할 만하다¹⁰⁾. 非專門職에 취업한主婦는 生活의 困窮함 때문에 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금전자원으로 시간을 代替하기 보다는 오히려 家事勞動에 시간을 投入함으로써 소득의 부족을 보완하거나(竹中 1977), 또는 家庭生活의 標準을 낮춤으로써 금전자원이나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回歸模型에서 설정한 총10개의 獨立變數의 說明力은 33.7%로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의 分散을 1/3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오늘날 大衆消費社會의 도래에 따른 商品의 풍요 속에서 進行되고 있는 家庭生活의 급격한 획일화현상을 감안할 때 본 모형의 說明力은 家事樣式의 變化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結 論

첫째,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있어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는 食生活領域과 衣生活領域에서는 企業에 의한 商品化의 급속한 進전에 따라 가사노동의 商品대체가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食생활

영역에 있어서 商品代替의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이나 市場購入이 유용한 영역에서부터 商品代替가 점진적으로 進전됨으로써 앞으로의 가사노동의 商品代替의 증가를 예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食생활의 變革이라고 볼 수 있는 된장, 고추장이나 김치 등 固有食品類의 市場購入은 아직도 극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는 주부의 연령, 家計所得, 주부의 학력 등과 같은 가족속성변수에 의해 규정됨과 동시에 家庭志向性, 家事勞動 重要度, 家事勞動 遂行能力과 같은 家父長的 規範變數와 人的資源變數에 의해 규정된다. 家庭志向性은 家父長的인 要素를 직접적으로 反映하고 있으며, 또한 가사노동 중요도와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性役割態도와 家庭志向性 등의 가부장적 규범변수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대한 家父長制의 영향의 중요성이 입증된다. 따라서 家事勞動에 대해 經濟體制와 家父長制의 두 脈絡에서 접근한 Hartmann(1974)의 이론적 개념들이 우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家計所得과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와의 관계에 있어서 家計所得變數를 로그치로 전환한 경우에 그 영향력이 더 커진 것으로 보아 家計所得의 限界商品大替性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즉 家計所得이 一定水準 이상으로 증가한 이후에는, 소득의 증가는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를 지연시키는 요인들—總效用水準의 增加, 生活標準의 上昇, 家정부의 고용 등—을 수반하게 되므로 그 영향력이 상쇄되게 된다.

넷째, 주부의 취업유무보다는 주부의 직업상 지위가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나타난 사실은 職業의 종류에 따라 就業主婦들이

註10) 分散分析을 통해 주부의 직업상 지위에 따른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의 차이를 볼 경우에도 非專門職에 취업한 주부집단과 非就業主婦集團間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사노동의 수행에 대해 相異한 方法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專門職에 취업한 주부들은 확대가족의 형태를 취하거나 가정고용인을 고용하거나 또는 가사노동을 商品代替함으로써 가사노동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반해 非專門職에 취업한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낮은 수준으로 商品代替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無償的 性格의 가사노동을 병행함으로써 低所得을 보완하거나 또는 전반적인 生活標準을 낮게 유지하고 있음을 示唆해 준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就業主婦들에 있어서 過重한 二重勞動의 부담, 또는 이들 家計에 있어서의 낮은 生活의 質이 특히 심각한 社會問題로 제기된다고 하겠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수반된 다양한 商品 및 用役의 개발과 보급은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를 촉진시키는 조건을 제공해 주며, 家計所得의 증대와 학력의 상승, 性的 規範과 관련된 價値의 進歩화와 家事勞動 技術水準의 저하는 앞으로 가사노동의 상품대체가 계속 증가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가 반드시 生活의 進歩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오히려 生活樣式을 歪曲시키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부 계층에는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또한 資本의 營利追求에서 오는 生活樣式의 파괴에 대한 危機意識이 고조되면서 가사노동에 의한 가정내 생산이 再評價되고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에 限界性이 부여된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의 限界는 生活水準의 向上에 수반된 높은 生活標準에의 추구경향과 生活의 劃一化에 대한 拒否, 그리고 주부의 家事役割을 강조하는 家父長的 세대올로기에 의해 더욱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國民生活의 福祉의 증대와 生活者의 主體性의 확보이다. 즉 國民生活의 質을 높이고 人間性을 회복하기 위해서 全體國民經濟

에 있어서 市場生産과 家計生産의 均衡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가 중요하다. 양 생산부문간의 균형의 문제는 국가차원에서의 政策的 代案과 직결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대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REFERENCES

- 1) 金泳謨：都市社會의 職業 및 階層構造, 사회복지연구 제12집, 1978
- 2) 朴仁德：夫婦 相互간의 役割 중 男便이 기대하는 妻의 役割, 대한가정학회지 15(4) : 59~76, 1977
- 3) 李基春：消費者能力開發을 爲한 消費者教育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5
- 4) 李東瑗：職業女性의 二重役割에 關한 研究.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27집, 229-265, 1976
- 5) 李美卿：性的 不平等에 關한 社會構造的 認識—家父長制와 階級構造의 關聯性을 中心으로—,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 6) 李令子：性役割과 女性의 賃金勞動, 女性研究, 제3권3호 韓國女性開發院, 32~61, 1985
- 7) 李容鶴：우리나라 就業主婦의 消費者行動에 關한 實證的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5
- 8) 李炯實：男便과 婦人의 性役割態도와 意思決定 類型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9) 정해은, 서병숙：女性專門職 從事者의 家庭內 役割에 關한 研究—서울市内 女子 教授를 中心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창간호: 27-41, 1983
- 10) 조혜정：韓國의 社會變動과 家族主義, 한국문화인류학, 제17집, 79-96, 1985
- 11) 韓晶子：都市主婦들의 價値觀 研究, 女性研究, 제3권3호, 韓國女性開發院, 69-78, 1986
- 12) Hartmann, Heidi 著 (조형譯)：資本主義, 家父長制, 性別分業, 第3世界 女性勞動, 여성평우회편, 서울：創作과 批評社, 54-97, 1985

- 13) 伊藤セツ 外 7人：家事労働の現状と動向(第1報)：總論，家政學雜誌，29卷 8號，47-53, 1978a
- 14) 伊藤セツ 外 7人：家事労働の現状と動向(第3報)：衣生活に關する 家事労働，家政學雜誌，29卷 8號，61-67, 1978b
- 15) 大森和子，好本照子，阿部和子，伊藤セツ，天野寛子共著：家事労働，東京：光生館，1981
- 16) 關志比子 外 5人：これがらの 家庭經營學，東京：建帛社，1982
- 17) 竹中恵美子：婦人の 賃金と 福祉，東京，創元社，1977
- 18) 官崎禮子，伊藤セツ編：家庭管理論，東京：有斐閣新書，1980
- 19) Becker, Gary S. : A theory of time allocation, *The Economic Journal*, 75(Sept.) : 493~517, 1965
- 20) Deacon, Ruth E. & Francille M. Firebaugh :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and Bacon Inc., 1981
- 21) Douglas : Cross-national comparisons and consumer stereotypes : A case study of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in the U.S. and Fra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 : 12-20, 1976
- 22) Egner, Erich : *Der Haushalt ; Eine Darstellung seiner volkswirtschaftlichen Gestalt*, 1952
- 23) Ehrenberg, Ronald G. and Robert S. Smith : *Modern Labor Economics*,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5
- 24) Fischer, Wolfgang : *Sozial-ökonomische Aspekte der Entwicklung der privaten Hauswirtschaft*, Bonn, 1972
- 25) Fisher, Wolfgang : Die Integration der privaten Hauswirtschaft in die volkswirtschaftliche Arbeitsteilung *Beiträge Zur Struktur Politik*, 58 : 44-62, 1975
- 26) Goebel, Karen P. and Charles B. Hennon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wife's employment status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meal preparation time, and expenditures for meals away from ho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 63-78, 1982
- 27) Gronau, Reuben :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4) : 1099-1124, 1977
- 28) Gross, Irma H., Elizabeth W. Crandall & Majorie M. Knoll :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80
- 29) Hartmann, Heidi I. : Capitalism and women's work in the home, 1900~1930, Ph.D.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74
- 30) Kyrk, Hagel : *Economic Problems of the Family*, New York : Harper & Bros., 1933
- 31) Leibowitz, A : Education and home produ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4 : 234-250, 1974
- 32) Michael, R. T. and G. S. Becker : On the new theory of consumer behavior, in G. S. Becker ed.,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6
- 33) Nichols, Sharon Y. and Edward J. Metzner :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2) : 85-97, 1978
- 34) Nickell, Paulena, Ann S. Rice, & Suzanne P. Tucker :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ed., John Wiley & Sons, 1976
- 35) Olson, Elizabeth, A. : A systems approach to the human valuing process : Exploration of theory, Ph.D.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82
- 36) Prais, S. J. & H. S. Houthakker :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s, with an Application to Two British Surveys Conducted in 1937~9 and Their Detailed Results*,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55
- 37) Reid, Margaret :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34
- 38) Sanik, Margaret M. : Division of household work : A decade comparison 1967~1977, *Home*

-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 175-180, 1981
- 39) Schaninger, C. M. & C.T.Allen : Wife's occupational status as a consumer behavior constru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 189-196, 1981
- 40) Schultz, T. W. : Women's new economic commandments, in *Families of the Future*, Ames :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3
- 41) Steidl, Rose E. and Esther C. Bratton : *Work in the Home*, John Wiley & Sons Inc., 1968
- 42) Waldman, Elizabeth and Eva E. Jacobs : Working wives and Family Expenditures, *Paper presented to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San Diego, CA., 1978
- 43) Walker, Kathryn, E. : Homemaking still takes time, *Journal of Home Economics*, 61 : 621-624, 1969
- 44) Walker, Kathryn E. & Margaret E. Woods : *Time Use :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76
- 45) Wheeler, Carole L. : Factors related to household and child care task responsibility of spouses in Houston, Texa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1-119, 1984
- 46) Wheeler, Carole L. & Richard D. Arvey :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1) : 10-19, 1981
- 47) Zaretsky, Eli : *Capitalism, the Family, and Personal Life*, New York : Harper & Row, 1976
- 48) Zick, Catleen D. and W. Keith Bryant : Alternative strategies for pricing home work tim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 133-114, 1983
-